

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기성용과 결혼이 안정된 연기 원천”
SBS ‘따뜻한 말 한마디’ 은진 役 한혜진
“나은진은 가족도 모르는 비밀에 기반해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전쟁과 같아요. 저 자신과 싸워가며 연기자로서 발전하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news,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shows.

EBS플러스1
00:0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01:00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01:40 내신6급
02:30 포스
03:20 "
04:10 "
05:00 "
05:50 "
06:40 고교특강 올림#포스
07:20 "
08:30 탐스런
09:10 "
10:00 "
10:50 "

EBS플러스2
07:00 다류프라이 세계의 자연 시리즈
07:50 수학의 원리 마티아티카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요리비전
09:00 출가순 수확 EBSMATH
09:10 중학 1학년
09:50 "
10:30 "
11:10 "
11:50 중학 2학년
12:30 "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15:10 스물렌드

5·18 편취 ‘일베 현상’ 집중조명

5·18민주화운동과 전라도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낸 ‘일베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KBS광주방송총국은 11일 밤 10시 KBS1 TV를 통해 보도특집 ‘얼굴 없는 폭력’(연출 김기중·지종익, 촬영 이숙준)을 방송한다.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맞아 기획한 이 프로그램에는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혐오 발언의 현실과 피해자들의 사연을 담았다.
올해 인터넷 혐오 발언의 진원지로 떠오른 ‘일베’를 대표하는 인물(이화일)이 어떻게 생겨나 극우화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일베 이용자를 만나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이 같은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지 이유를 들어본다.
5·18과 전라도,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혐오가 왜 인터넷에 넘쳐나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혐오 발언의 사회적 위험을 경고한다.
일본과 독일의 극우 세력과 다른 듯 닮아 있는 일베 현상을 분석한 취재팀은 일본과 독일 현지에서 극우주의자들을 만나고, 이들로부터 대안을 찾는다.
인터넷 기반의 우익 세력이 등장한 일본은 중학생이 공공장소에서 제일한국인에 대한 학살 발언을 하는 등, 오프라인 확장 뒤 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독일은 신나치주의자들의 외국인 폭행과 살해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 기구가 나서 대응하고 있다. 극우파의 좋은 무기인 인터넷에 넘쳐나지 않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혐오 발언의 사회적 위험을 경고한다.
일본과 독일의 극우 세력과 다른 듯 닮아 있는 일베 현상을 분석한 취재팀은 일본과 독일 현지에서 극우주의자들을 만나고, 이들로부터 대안을 찾는다.
인터넷 기반의 우익 세력이 등장한 일본은 중학생이 공공장소에서 제일한국인에 대한 학살 발언을 하는 등, 오프라인 확장 뒤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descriptions and lucky numbers.

TV 하이라이트

외연도 해녀들의 숨겨진 삶
소아전용 응급실의 긴박한 24시
한·중·일 북극해 경쟁 승자는
지구의 마지막 보물 창고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남방항로에 비해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이 북극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에 뛰어들 '티켓'을 받은 것이다. 북극을 향한 경쟁에 3국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 이번 주 '시사기획 창'에서는 2부 '한중일, 운명의 승부처'를 방송한다. 북극을 향한 3국의 역사와 전략과 인프라 등을 현장 취재했다.